

증권 다이제스트



SK증권

ELS 1종·ELB 1종 공모

SK증권은 오는 16일까지 추가연계증권(ELS) 1종 및 추가연계파생결합사채(ELB) 1종을 공모한다.

'제2400회 ELS'는 흥국항생(HSCSEI) 지수 및 유로스톡스50(EUROSTOXX50) 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3.5년 만기 조기상환형 원금비보장 상품이다. 두 기초자산이 매 6개월 조기상환평가일마다 최초기준가격의 90% (6·12·18개월), 85% (24·30개월), 80% (36개월) 이상이 되면 6.70% 수익을 지급한다. 또한 만기평가일에 두 기초자산이 최초기준가격의 65% 이상이면 연 6.7% 수익을 지급한다. 최소가입금액은 100만원이고 100만원 단위로 청약이 가능하다.

/손영지 기자



대신증권

3개월간 '굿즈모닝 이벤트'

대신증권은 크레온 계좌를 개설하고 첫 거래한 고객에게 직접 제작한 가방과 명함지갑, 1만원권 펀드쿠폰 등 다양한 경품을 제공하는 '굿즈모닝 이벤트'를 3개월간 진행한다. 대신증권 크레온 브랜드 인지도를 높이고 고객기반을 확대하기 위해 마련한 이벤트로, 유명 패션 업체와 협업해 직접 만든 한정판 굿즈(Goods)를 경품으로 제공한다. 첫 계좌개설 이벤트는 크레온 MTSE로 비대면 계좌를 개설한 신규고객을 대상으로 자체 제작한 토트백을 선착순 3000 명에게 제공한다. 또, 5년 간 주식거래 수수료 무료 혜택도 제공한다.

/김문호 기자



키움증권

해외주식·ETF 투자 대전망

키움증권은 '해외주식·ETF 투자 대전망'을 오는 15일 오후 6시 30분부터 서울 여의도 키움파이낸스 빌딩 2층에서 개최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설명회 첫 강사는 유동원 키움증권 글로벌주식팀장이 진행한다.

첫 번째 강의에서는 글로벌 주식 투자 전략, 신항구 시장 투자와 글로벌 태양광 업종분석 위주로 진행한다. 특히 대표 대체 에너지 업종인 태양광 업종 개별종목에 대한 소개가 있을 예정으로 개별주식 투자에 관심이 많은 투자자에게 유익한 시간 될 것으로 보인다.

/손영지 기자

외국주식보다 안전하고 해외펀드보다 편리하네

자산운용사, 해외지수 ETF 선점 경쟁

(상장지수펀드)

73개 해외 ETF 수익률 3.93% 매매 편리성·투자 다양성 확보

국내 자산운용사가 해외 지수에 투자하는 상장지수펀드(ETF) 상장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국내 지수 ETF 시장은 포화상태인데다 EMP(자산의 50% 이상을 ETF로 구성하는 포트폴리오) 상품 출시를 위해선 다양한 ETF 상품 라인업이 필요해사다.

13일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연 초 이후(9월 기준) 국내 증시에 상장된 해외 ETF에 총 1971억원의 자금이 순유입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3개월 순유입 규모는 2035억원, 1개월 순유입액은 732억원으로 자금 유입이 꾸준하다.

수익률도 주목할 만 하다. 국내에 상장된 총 73개 해외주식 ETF의 연 초 이후 수익률은 3.93%로 국내주식 ETF가 해당기간 1.37% 하락한 것을 감안하면 괄목할 만한 성과다.

특히 한국투자신탁운용이 상장한 미국 4차산업 지수, 베트남 지수 ETF는 각각 16.13%, 13.48% 수익률로 압도적인 성과를 기록해 눈길을 끌고 있다.

해외주식 ETF는 투자자들의 수요와 수익률을 모두 만족시키면서 새로운 투자상품으로 주목받고 있다. 더욱이 해외주식 펀드와 달리 일주일여의 펀드 환매

<연초 이후 수익률 상위 해외 ETF>

Table with columns: 펀드명, 운용사, 수익률. Lists top-performing international ETFs like 한국투자KINDEX and 미래에셋TIGER.

*설정액 10억원 이상 펀드 대상(운용/모펀드 제외), 3월 9일 기준.

/자료=에프앤가이드

기간 없이 주식처럼 즉시 사고파는 것이 가능하다는 편리성과 투자의 다양성을 확보한다는 측면이 매력적이다.

윤주영 미래에셋자산운용 ETF 본부장은 "해외 ETF를 적극 개발하는 것은 투자자들에게 국내 뿐만 아니라 해외 등 다양한 투자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라며 "투자자들의 수요도 커지고 있고, 글로벌 분산투자를 통해 수익 기회를 찾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때문에 국내 자산운용사들은 해외주식 ETF 라인업 확보에 주력하고 있다.

가장 적극적인 자산운용사는 한국투자신탁운용이다. 실제 연초 이후 높은 성과를 기록한 해외 ETF 상위 5개 중 3개 상품이 한투운용의 ETF다. 지난 9일에는 업계 최초로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

SCI) 멕시코 지수를 추종하는 상품을 출시했다. 해외 증시에 기초한 ETF 상품을 내놓는 운용사는 한투운용이 유일하다.

상반기 내에도 다양한 해외 ETF 상장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현빈 한투운용 ETF 팀장은 "베트남은 국내 기업이 많이 진출하는 곳여서 성장 가능성을 봤고, 러시아는 유가 상승에 따른 호재가 있을 것이라고 봤다"면서 "이번 멕시코 지수 ETF 역시 폐소화가 신흥국 통화 중 저평가됐다는 점에서 투자 가치가 있을 것으로 보고 상장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향후 투자 매력도가 있다고 생각되는 국가가 있으면 적극적으로 ETF 상장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미래에셋자산운용은 지난 달 미국 ETF

분양시장 최대어 '디에이치 자이개포' 16일 견본주택 개관

3.3㎡당 평균 분양가 4160만원 '부자들만의 로또 아파트' 비판

올 상반기 아파트 분양시장 최대어로 꼽히는 '디에이치 자이개포' 아파트 모델하우스가 오는 16일 오픈한다.

서울시 강남구 개포 중공8단지 재건축 아파트인 '디에이치 자이개포'는 지난 12일 강남구청으로부터 분양승인을 받았다.

현대건설 컨소시엄(현대건설·GS건설·현대엔지니어링)이 짓는 디에이치 자이개포 분양이 본격화한 셈이다.

현대건설에 따르면 오는 14일 입주자 모집 공고를 거쳐 16일 견본주택을 개관하고 분양을 시작한다.

디에이치 자이개포 아파트의 일반 분양분은 전용면적 ▲63㎡ 188가구 ▲76㎡ 238가구, ▲84㎡ 772가구, ▲103㎡ 240가구, ▲118㎡ 204가구, ▲132㎡



'디에이치 자이개포' 투시도.

/현대건설

42가구, ▲173㎡ 5가구, ▲176㎡ 1가구가 공급된다.

지하 4층, 지상 35층, 15개 동 규모로 들어서며 전용 85㎡ 이하 중소형(1198가구)이 전체의 70%를 넘는다. 전용 173㎡와 176㎡는 펜트하우스다. 당초 '디에이치 자이개포'는 높은

시세차익으로 과도한 청약경쟁이 예상되면서 '로또 아파트'라는 말이 돌았다. 3.3㎡당 평균 분양가는 4160만원으로 전용 면적 84㎡ 기준 분양가는 12억 원대 중반에서 14억 원으로 책정됐다. 인근 아파트 가격과 비교해 4억 원 차이가 난다. 당첨만 되면 4억 원 안팎의 시

세차익이 기대되는 이유다.

강남구 일원동 부동산중개업소 관계자는 "확실치는 않지만 당첨만 되면 약 7억~8억원의 시세차익도 기대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나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디에이치 자이개포 아파트는 중도금 대출이 안돼 계약금(10%)과 중도금(60%)을 내려면 9억원 이상의 현금이 필요하다. '여유있는 사람들만의 리그'라는 말이 나오는 이유다. 당첨 가능성이 높은 무주택자에게 9억원은 큰 부담이다. 돈 있는 사람만 청약할 수 있다는 점에서 '부자들만의 로또 아파트'라는 비판도 나온다.

건국대학교부동산학과 심교인 교수는 "청약 경쟁률 1000대 1을 예상하고 있다. 청약 과열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시세차익을 줄여야 한다. 분양가가 낮다고 해도 결국 경제적으로 부유한 사람들에게만 기회가 주어지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정연우 기자 yw964@

'조망권' 따라 집값 달라지는 오피스텔

가능 여부에 시세·매매가 달라져

오피스텔 분양시장에서 조망권 경쟁이 치열하다. 공원이나 호수, 산 등 탁 트인 조망을 강조하는 오피스텔이 늘고 있는 것.

13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오피스텔 분양 시장에서도 조망권 여부가 관심이 많다. 조망권을 갖춘 오피스텔이 시세를 주도하고 있어사다.

지난해 10월에 분양한 '광고 SK VIE레이크' 오피스텔은 최고 청약경쟁률 56대 1, 평균 경쟁률 36대 1을 기록했다. 이 오피스텔은 광고호수공원 조망이 가능하다는 점이 높은 청약경쟁률의 주된 원인으로 꼽혔다.

지난해 11월 우미건설이 동탄2신도에 공급한 '동탄 린스트라우스 더레이크' 오피스텔은 186실 모집에 6만2383건이 접수돼 평균 335.39대 1, 최고 401.66

대 1의 높은 경쟁률로 마감됐다. 이 오피스텔은 동탄호수공원 조망이 가능하다는 점을 내세웠다.

조망권은 시세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KB부동산리자리에 따르면 대표적인 한강 조망권 오피스텔인 서울 용산구 한강로 3가에 자리한 '대우 트림프월드3차' 전용 39㎡의 경우 평균매매가는 3억 3000만원을 기록했다. 신원산역 인근에 위치한 '대우아이빌8차' 오피스텔은 2억 3000만 원으로 1억원 가량 차이가 난다.

월세 역시 '대우 트림프월드3차'의 경우 보증금 1000만원에 월 임대료가 110

만원에서 125만원 선이지만 '대우아이빌8차'는 보증금 1000만원에 월 임대료가 75만~80만원 선으로 30만원 이상 차이가 난다.

같은 단지 내에서도 조망권에 따라 매매가가 다르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서울 마포구 도화동에 있는 '마포한화오벨리스크'(2004년 입주)는 지난 3분기 18층에 위치한 전용면적 31㎡ 타입이 2억6000만원에 매매됐다. 반면 같은 기간 7층은 2억4000만 원에 거래됐다.

/정연우 기자